

# 낙선재본 《홍루몽》 협주 번역의 “오류/오역” 연구\*

趙旻祐\*\*

## < 목 차 >

1. 들어가며
2.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특징
  - (1) 협주의 형태적 특징: 한자음 표기와 한국어 해석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한자음 연구를 중심으로
3.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한자음 표기 분석
  - (1) 번역 저본 분석: “鶻子” 사례를 중심으로
  - (2) 번역 경향성 분석: “玫瑰”와 “花神” 사례
4.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한국어 해석 분석
  - (1) 번역자가 원문을 모르는 경우
  - (2) 번역자의 의미 선택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낙선재본 《홍루몽》(이후 《낙본》이라 칭하겠다)은 1960년대 창덕궁 낙선재에서 발견된 113종의 소설 중 하나이면서 중국 사대소설 중 하나인 《홍루몽》의 完譯본으로 유명하다. 《홍루몽》은 《낙본》이 번역되기 전 이미 몽고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모두 일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한 발췌역 또는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번역한 축역본이기에 《낙본》의 完譯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5136).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nadrak@naver.com)

홍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낙본》의 번역에 대해서 최용철, 김태성, 박재연, 김명신, 양인중, 정경자, 오단, 정미선, 조민우, 왕비연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sup>1)</sup>

특히 최용철은 《낙본》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초기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한국 홍학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그의 1988년 <樂善齋本完譯紅樓夢初探><sup>2)</sup>은 《낙본》 연구의 효시로서 嘉藍 李秉岐의 의견<sup>3)</sup>을 통해 판본 및 번역자에 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 또 《낙본》의 번역 상의 특징, 注音 표기의 특징 등을 정리하여 《낙본》 번역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

《낙본》의 번역 연구는 크게 한자음 표기 연구와 번역 양상 연구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자음 표기에 관해서는 2003년 김태성의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성은 <낙선재본 《홍루몽》 역음 성모 표기체계 고찰><sup>4)</sup>에서 한자음 표기를 정리하여 일종의 “체계”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낙본》의 한자음 표기는 번잡한 “혼란상”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낙본》 한자음 표기가 혼란한 이유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작업되었고 이것은 한편으로 사역원의 공식적인 업무 범주를 넘어서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역음자들 개인의 청각 영상과 서사 습관 등에 기인한 혼란

- 1) 최용철, <樂善齋本 完譯紅樓夢初探>, 《중국어문논총》 제1권, 1988년 12월; 김태성, <낙선재본 《홍루몽》 역음 성모 표기체계 고찰>, 《중어중문학》 제33집, 2003; 양인중, <<홍루몽> 낙선재 한글 번역본의 번역기법 연구>, 《동아인문학》 제3집, 2003년; 김명신, <樂善齋本《紅樓復夢》의 翻譯樣相>, 《중국소설논총》 제21집, 2005; 정경자, <낙선재본 《홍루몽》 판본 연구>, 《통합인문학연구》 Vol.1 No.2, 2009; 정경자, <樂善齋本紅樓夢의 脫文 研究>, 《중국소설논총》 제31집, 2010; 오단, <락선재본 《홍루몽》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조민우, <樂善齋本《紅樓夢》對清代文化術語的翻譯方式與意義>, 《중국어문학논집》 제94호, 2015년 10월; 정미선, <<紅樓夢>樂善齋版本的翻譯研究>, 華中師範大學 박사논문, 2015, 왕비연, <樂善齋本 紅樓夢의 翻譯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9.
- 2) 최용철, <樂善齋本 完譯紅樓夢初探>, 《중국어문논총》 제1권, 1988년 12월.
- 3) 최용철은 가람 이병기가 쓴 《국문학전서》의 “고종황제 21년(1884)을 전후하여 문사 이종태라는 이가 황제의 명을 받아 문사 수십 명을 동원하여 오랫동안 중국소설을 번역한 것이 근 백중에 가까웠고”를 인용하여 《낙본》의 번역자, 제작과정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 4) 김태성, <낙선재본 《홍루몽》 역음 성모 표기체계 고찰>, 《중어중문학》 제33권, 2003.

상을 보이는 것”<sup>5)</sup>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조선의 번역 과정의 실상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최용철의 연구를 기초로 양인중, 왕비연 등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양인중은 자신의 연구에서 《낙본》이 逐字譯, 直譯, 意譯<sup>6)</sup>을 섞어 사용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2019년 왕비연은 최용철, 양인중의 연구를 계승하여 《낙본》의 번역을 “異國化 (Foreignization)와 自國化 (Domestication)의 번역 방법”<sup>7)</sup>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왕비연은 《낙본》의 번역 어휘를 자국화 어휘, 이국화 어휘, 도태된 어휘로 분류하였다.<sup>8)</sup> 異國化와 自國化 개념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기존의 직역, 의역으로 구분하는 번역 방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낙본》 번역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연구자들이 《낙본》의 “오류/오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0년 정경자의 <樂善齋本紅樓夢의 脫文 研究>는 연구 방법론적 모색과정에서 脫文이라는 ‘오류’에 중점을 둔 연구물로 볼 수 있다. 또 2017년 조민우의 <樂善齋本《紅樓夢》對清代文化術語的翻譯方式與意義><sup>9)</sup>에서도 오역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왕비연은 《樂善齋本《紅樓夢》의 翻譯研究》에서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면서 다양한 오역 사례를 보여주었다.

종합해보면 《낙본》의 번역 연구는 한자음 표기, 번역 양상 연구를 통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제는 《낙본》 번역의 심화 연구로서 양상 연구가 아닌 번역의 의의를 찾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문의 “오

5) 김태성, 같은 논문, 138쪽.

6) 楊人從, <《홍루몽》 낙선재 한글 번역본의 번역기법 연구>, 《동아인문학》 제3집, 2003, 69쪽 참고.

7) 왕비연, 《樂善齋本 紅樓夢의 翻譯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9, 116쪽.

8) 왕비연, 같은 논문, 116-124쪽 참고.

9) 拙稿, <樂善齋本《紅樓夢》對清代文化術語的翻譯方式與意義>, 《중국어어문학논집》 제 94호, 2015년 10월, 260-273쪽 참고.

류/오역”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낙본》 번역의 의의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특히 《낙본》에는 序文, 跋文 등의 어떠한 2차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본》에서 “오류/오역”이 발생한 夾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번역 과정을 재구성하고 번역자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낙본》에는 다양한 “오류/오역” 사례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夾注가 있는 번역 구문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먼저 협주에 대한 소개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별 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낙본》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2.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특징

### (1) 夾注의 형태적 특징: 한자음 표기와 한국어 해석

《낙본》에는 간혹 본문보다 작은 글씨의 주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주는 대개 해당 어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협주가 달린 번역문은 자연스럽게 협주가 없는 다른 번역문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절에서는 홍루몽 제1회의 “靈河”라는 어휘(그림1 참고)에 달린 번역문과 협주를 예로 들어 형태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靈河”는 상상 속의 장소로 도교적 색채가 강한 어휘이다. 아마도 번역자는 “靈河”의 종교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협주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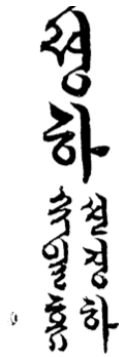


그림 1. “靈河”의 번역문과 협주

번역문: 령하

협주: 선경 하슈 일흠<sup>10)</sup>

번역자는 우선 “령하”라는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고, 그 다음 “선경 하슈 일훙”라는 해석을 달았다. “선경 하슈 일훙”은 “仙境 河水의 이름”이라는 설명일 것이다. 이는 《낙본》 협주 번역의 형태상 두 개의 구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우선 원문의 한자음 표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의미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을 적는 부분이 있다.

《낙본》에는 이러한 협주가 총 579개 있다.<sup>11)</sup> 이 협주를 중심으로 번역상의 “오류/오역”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위 ‘오역’은 번역과정에서 해당 어휘의 의미를 몰라 발생하는 실수로 정의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오류’는 동일한 단어를 소설의 전, 후반부에 다르게 번역한 사례 같은 실수, 착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낙본》에서는 “玫瑰”라는 어휘를 “문괴”, “민괴”, “민괴”, “메구” 등 4개의 번역어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이는 ‘오역’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지만 일관되지 않게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번역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필자는 협주 번역 중 “오류/오역”이 발생한 “鶻子”, “玫瑰”, “花神”, “招牌” 등 사례를 주목하였고 이를 협주의 형태적 특징인 한자음 표기 부분, 한국어 해석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기와 해석, 이 두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필자는 《낙본》의 번역 底本, 번역자들의 번역 경향, 번역태도 등 다양한 의의를 검토하겠다.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한자음 연구를 중심으로

1장에서 《낙본》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자음 표기 부분의 분석은 선행된 《낙본》의 한자음 표기 연구

10) 《낙본》, 제1회, 16쪽 A면.

11) 《낙본》의 주석에 관해 최용철은 567개 주석이 있다고 정리하였고, 왕비연은 579개 주석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왕비연의 정리가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왕비연, <樂善齋本《紅樓夢》中夾註之性格與特點>, 《중국어논문총》 제91집, 2019, 137쪽 참고.

와 다소 차별점이 있기에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낙본》의 한자음 표기 연구는 앞서 언급한 최용철, 김태성 외에도 왕비연 역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위 세 연구의 연구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본》의 특수한 번역 방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2”와 같이 《낙본》의 모든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두 영역으로 나뉜다. 위 A영역에는 붉은 색 漢字와 검은 색 한국어 역음이 적혀 있고 아래 B영역에는 검은 색 번역문이 적혀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한눈에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읽을 수 있게 만든 《낙본》의 독특한 필사 방식이다. 이 부분에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이 있다. 최용철, 김태성, 왕비연 등 기존 《낙본》의 한자음 연구는 바로 A영역의 漢字와 한국어 역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B영역의 한자음이다.

《낙본》을 살펴보면 A영역과 B영역은 하나의 번역행위에 속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별 사례 중에는 A영역과 B영역이 같은 실수를 범한 사례가 소수 존재하지만, A영역의 원문 및 한자음 필사 작업은 B영역의 번역 작업과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2)</sup>

다시 말해 만약 언어학적 차원에서 19세기 한국어의 한자음 표기 문제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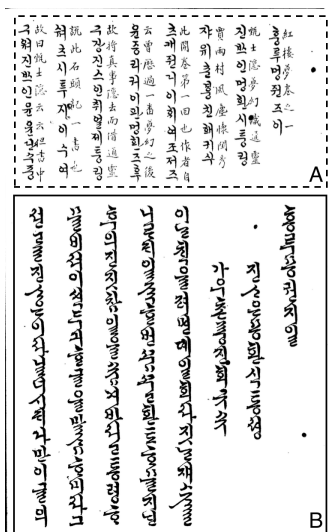


그림 2. 《낙본》제1회 제1면, 위 점선 부분이 A영역, 아래 실선 부분이 B영역이다.

12) 1988년 김태범은 《낙본》 A영역의 誤字가 B영역 번역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김태범, 《韓文藏書閣本紅樓夢研究》, 東海大學 碩士論文, 1988, 30-33쪽 참고), 2019년 왕비연은 A영역의 誤字가 B영역 번역문에서도 사용된 사례를 소수 발견하였지만 대부분의 誤字가 번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김태범의 의견에 동의하였다.(왕비연, 《樂善齋本 紅樓夢의 翻譯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9, 79-81쪽 참고.)

된다면 A영역은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겠지만, 《낙본》의 한자음 표기 문제를 살핀다면 실제 번역이 이루어진 B영역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B영역의 텍스트를 살핌으로서 A영역을 대상으로 삼은 기존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제 위 B영역의 협주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음 표기와 한국어 번역이라는 두 부분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겠다. 이는 《낙본》의 底本 문제, 번역자의 번역 경향, 작품 해석 등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한자음 표기 분석

#### (1) 번역 底本 분석: “鴿子” 사례를 중심으로

《홍루몽》에서 “鴿子”라는 단어는 제40회에 한 번 등장하였다. 소설의 제 40회는 시골에서 상경한 유노파(劉姥姥)가 가보옥의 집안을 방문하는 내용이다. 유노파는 유머러스한 언행으로 수차례 賈母를 비롯한 대관원의 아가씨들을 즐겁게 하였는데, 그 중 한 장면은 유노파가 “鴿子蛋”, 즉 비둘기 알을 달걀로 오해하여 가모 일족이 크게 웃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장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鳳姐兒偏揀了一碗鴿子蛋放在劉姥姥桌上。(회봉은 하필 비둘기 알이 들어 있는 사발을 들어서 유노파의 식탁에 올려놓았다.)<sup>13)</sup>

《낙본》은 옆의 “그림3”과 같이 “鴿子”를 “령즈”로 번역하고 다음과 같이 주

13) 조설근 저, 최용철, 고민희 옮김, 《홍루몽》 2권, 나남출판사, 2009, 468쪽.

를 달았다.

번역문: “령즈”

협주: 닭의 별명<sup>14)</sup>

이를 살펴보면 “령즈”는 필사자의 誤記이거나 번역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령즈”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사는 이 한자음 표기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저본의 漢字 識別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루몽의 각종 판본을 비교하여 보았다.

《홍루몽》의 판본은 葦文書屋에서 간행된 1791년의 《程甲本》과 이듬 해 1792년의 《程乙本》이 대표적이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낙본》의 底本으로는 《程甲本》계열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程甲本》계열’이라 함은 앞서 말한 《程甲本》의 영향으로 받아 인쇄된 모든 판본을 지칭한다.

현재 한국에 소장된 《程甲本》계열은 한국학중앙연구소의 《本衙藏本》, 경주도서관의 《東觀閣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三元堂本》, 《雙淸仙館本》(혹 《王評本》<sup>16)</sup>이라고 함), 《金玉緣本》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三元堂本》은 《東觀閣本》 판본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서적이고,<sup>17)</sup> 《金玉緣本》은 1882년에 인쇄된 서적으로 《낙본》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낙본》의 “鷓子” 번역문

14) 《낙본》, 제40회, 25쪽 A면.

15) 최용철은 程甲本계열이 번역저본이라 주장하며 “初期의 脂硯齋評本은 한국에 전래된 바가 밝혀지지 않아 영향력이 없고 程乙本은 실제로 1927년에야 재발견되어 현대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최용철, <樂善齋本完譯紅樓夢初探>, 《중국어문논총》 제 1권, 1988년 12월, 191-192쪽.)

16) 《雙淸仙館本》은 1832년 王希廉이 “雙淸仙館”에서 간행한 홍루몽 판본으로, 곳곳에 王希廉 자신의 評語가 실려 있어 《王評本》이라고도 한다. 다만 본 글에서는 간행된 장소를 중시하여 《雙淸仙館本》이라 하겠다.

17) 《三元堂本》이 《東觀閣本》의 翻刻本이라는 사실은 曹立波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曹立波, 《紅樓夢東觀閣本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59-65쪽 참고.)



이러한 이유로 “鴿子”를 비교할 판본으로 《程甲本》, 《程乙本》, 《本衙藏本》, 《東觀閣本》, 《雙淸仙館本》 5종의 판본을 선정하였다. 즉, 《程甲本》, 《程乙本》은 각각 최초의 홍루몽 판본으로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本衙藏本》, 《東觀閣本》, 《雙淸仙館本》은 《程甲本》계열로서 기존 학자들이 《낙본》의 저본으로 추측하는 세 개의 중요한 판본이다. 결국 《程甲本》, 《程乙本》, 《本衙藏本》, 《東觀閣本》, 《雙淸仙館本》 등 5종 판본을 살펴봄으로써 “鴿子”를 “령즈”로 표기한 문제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래 “그림 4”는 위 5종 판본의 “鴿子”를 대조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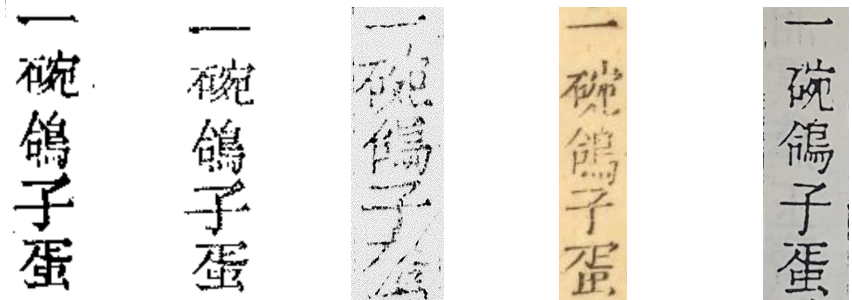


그림 4. 왼쪽부터 《程甲本》, 《程乙本》, 《本衙藏本》, 《東觀閣本》, 《雙淸仙館本》이다

위와 같이 다섯 종의 판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鴿子”를 “령즈”라고 표기한 어휘의 “령”이라는 번역은 漢字 식별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程甲本》, 《程乙本》은 “鴿”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지만, 《本衙藏本》, 《東觀閣本》의 “鴿”는 입구 “口”자의 오른쪽 세로획이 길게 내려온다. 바로 위 “碗”의 “口”의 형태나, “蛋”에서 “虫”의 오른쪽 빼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당시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금속활자의 특징이다. 독자들은 대개 어렵지 않게 본래 글자를 바로 유추할 수 있지만, “鴿”같은 경우는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鴿”자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마지막 《雙淸仙館本》의 “鴿”는 “口”의 오

른쪽 세로획이 길게 내려옴과 동시에 아래 가로획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러하기에 《雙淸仙館本》의 “鵠”자는 “鶴”와 가장 비슷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현대 번역작업에서 원문 텍스트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19세기 조선에서는 판본의 다양함, 活字인쇄의 특징 및 서적의 보존 상태 등으로 인해 漢字 識別 문제는 번역 과정의 중요한 단계이었을 것이다. 본 사례는 실제로 저본의 한자 식별을 잘못하여 誤記로 이어진 사례로 보인다.

즉 번역자는 “鵠”자를 “鶴”자로 識別한 것으로 보이며, 번역자가 참고한 저본은 “鵠”자를 “鶴”자와 가장 비슷하게 인쇄한 《雙淸仙館本》<sup>18)</sup>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本衙藏本》, 《東觀閣本》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2) 번역 경향성 분석: “玫瑰”와 “花神” 사례

### 1) “玫瑰” 사례로 보는 번역 경향성

《홍루몽》을 기준으로 “玫瑰”는 9회에 걸쳐 총 16번 출현하였다. 《낙본》에서는 이 16번의 “玫瑰”를 “문괴”, “민괴”, “미괴”, “메구” 등 4개의 번역어로 표기하였고 네 개의 서로 다른 협주가 존재한다. 협주에 관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본 절에서는 한자음 표기의 다양성에 집중하겠다. 번역자는 제44회까지는 “문괴”, “민괴”를 사용하였고, 제56회부터는 “미괴”, “메구”를 사용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최용철, 정경자 등 학자 역시 《雙淸仙館本》이 底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연구 방법상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용철은 낙본 《홍루몽》의 回目비교 연구를 통해 《雙淸仙館本》이 底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고(최용철, <樂善齋本完譯紅樓夢初探>, 《중국어문논총》 제1권, 1988년 12월, 191-193쪽 참고), 정경자는 脫文연구를 통해 제5회 누락된 번역이 《雙淸仙館本》의 한 페이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최용철과 같은 추정을 하였다.(정경자, <樂善齋本紅樓夢의 脫文 研究>, 《중국소설논총》 제31집, 2010, 353쪽 참고) 본문은 선행 연구의 방법과 다르게 “鵠子”의 한자 식별 문제를 통해 底本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1: 《낙본》 내 “玫瑰” 번역어

제44회 이전: “문괴”, “민괴”			제56회 이후: “미괴”, “메구”		
제8회	1번	문괴	제56회	1번	미괴
			제60회	3번	메구
제34회	3번	민괴	제61회	3번 <sup>19)</sup>	미괴, 메구
			제62회	1번	메구
제44회	1번	문괴	제63회	1번	미괴
			제65회	2번	미괴

“표1” 같이 《낙본》 내 “玫瑰”에 관한 번역어는 크게 제44회 이전의 “문괴”, “민괴”와 제56회 이후에 나타나는 “미괴”, “메구”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도 “玫瑰”를 분석하는 연구가 존재했으나 이는 한국어 해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sup>20)</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玫瑰” 역시 한국어 해석 과정과 따로 구분하여 한자음 표기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만 앞서 분석한 “鶻子”와 달리 “玫瑰” 한자음의 표기는 판본 식별 문제보다는, 소설 내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지, 복합사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2: 《낙본》 “玫瑰” 관련 문장<sup>21)</sup>

장회	원문 <sup>22)</sup>	낙본	장회	원문	낙본
제8회	玫瑰紫二色金銀線的坎肩兒	문괴	제60회 C	方知是玫瑰露,忙接了	메구뢰
제34회 A	只拿那糖醃的玫瑰滷子 and 了	옛시 담은 민괴 저린 것	제61회 A	只在—簇玫瑰花前站立	미괴화
제34회 B	既是他嫌那玫瑰膏子吃絮了	민괴	제61회 B	玉釧兒姐姐要些玫瑰露	메구로
제34회 C	那一個寫著玫瑰清露	민괴 묶은 니슬	제61회 C	芳官給他玫瑰露了	메구로
제44회	裡面盛著一盒,如玫瑰膏子一樣	문괴(夾注: 문괴로 고은 고라)	제62회	你只知道玫瑰露和茯苓霜兩件	메구로

19) 제61회는 “玫瑰”가 총 3회 출현한다. 그중 “미괴”로 1번, “메구”로 2번 사용되었다.

20) 즐고, 《中介者十九世紀朝鮮譯官李尙迪之世界圖像》, 대만대학교 박사논문, 2018, 158-165쪽 참고. 당시 연구를 진행할 때는 “玫瑰” 번역에 있어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복합사로 쓰이는 경우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56회	單只說春夏兩季的玫瑰花	민괴	제63회	一個各色玫瑰芍藥花瓣裝的玉色夾紗新枕頭	민괴
제60회 A	前日那玫瑰露,姐姐吃了沒有?	메구로	제65회 A	玫瑰花兒可愛, 刺多扎手	민괴화
제60회 B	又說還要些玫瑰露給柳五兒吃去	메구로	제65회 B	三姑娘的混名兒叫“玫瑰花兒”	민괴화

“표2”와 같이 《낙본》에서 “玫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쓰였다. 우선 “玫瑰”, 혹은 “玫瑰花”로 쓰이며 꽃을 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표에서 제8회, 제56회, 제61회 A, 제63회, 제 65회 A,B의 사례가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玫瑰露”, “玫瑰膏子”, “玫瑰滷子” 등 음료나 향료로 쓰이는 복합어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제34회 A,B,C나 제44회, 제60회 A,B,C, 제61회 B,C, 제62회의 사례가 해당된다.

이상 본 절에서는 두 표를 통해 《낙본》에서 “玫瑰”가 쓰이는 상황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복잡하기만 한 “玫瑰” 한자음 표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제44회 이전의 경우 번역자는 “玫”가 아닌 “玫”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sup>23)</sup> 해당 번역은 최대한 고유어로 풀어 쓰는 意譯에 주력하였다. 번역자는 “玫瑰滷子”, “玫瑰清露”를 “엿시 담은 민괴 저린 것”, “민괴 맑은 니슬”<sup>24)</sup> 등과 같이 고유어로 풀어쓰는 의역의 방식을 택하였다.

반면 제56회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자는 “玫”자를 “玫”로 읽지 않고 “민괴”, “메구”를 표기했다. 그리고 “玫瑰露”를 고유어로 풀어쓰기 보다는 원어휘와 유사한 “메구로”라는 直譯의 방식을

21) 표에서 인용한 《낙본》 “玫瑰”의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제8회 8쪽 A면; 제34회 17쪽 A면(A); 제34회 17쪽 B면(B); 제34회 18쪽 B면(C); 제44회 26쪽 A면; 제56회 18쪽 B면; 제60회 31쪽 B면(A); 제60회 33쪽 B면(B); 제60회 35쪽 A면(C); 제61회 15쪽 A면(A); 제61회 19쪽 A면(B); 제61회 24쪽 B면(C); 제62회 20쪽 B면; 제63회 11쪽 A면; 제65회 28쪽 A면(A); 제65회 42쪽 A면(B).

22) “원문”은 모두 《程甲本》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23) 번역자는 “玫”가 아닌 “玫”로 읽은 이유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4) “엿시 담은 민괴 저린 것(糖醃的玫瑰滷子)”, “민괴 맑은 니슬(玫瑰清露)”를 현대 한국어로 풀이하면 각각 “엿에 담은 장미 저린 것”, “장미 맑은 니슬”로 보인다.

택한다. “미괴”, “메구”의 표기에도 원칙이 존재하였다. 의미상 꽃인 경우에는 “미괴”를, 의미상 음료나 향료를 뜻하는 경우에는 “메구”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태성은 《낙본》의 한자음 표기를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하다고 평하였지만 본 연구는 적어도 일부 한자음 표기에서 번역자 나름의 논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특히 제56회 이후의 한자음 표기는 단독사와 복합사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낙본》 번역의 “다양함”은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할 경우 번역자의 이성적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玫瑰” 한자음 표기의 다양함을 통해 우리는 《낙본》 번역자의 번역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번역자들은 최대한 한글 고유어/한글 고어로 풀이하려는 意譯 경향과 반대로 중국어 원어회를 살리는 直譯 경향이 있으며, 이 두 번역 경향은 크게 제44회 이전과 제56회 이후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花神” 사례로 보는 번역 경향성

앞서 “玫瑰”의 사례에서 《낙본》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번역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花神”이라는 단어의 한자음 표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sup>25)</sup>

“花神”은 말 그대로 “꽃의 신”으로 명청시대 민간 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홍루몽에서도 “花神”은 소설상 중요한 소재로서 여성 캐릭터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사용되었다.

정갑본 계열 홍루몽에서 “花神”이란 단어는 5회에서 총 12번 출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7회에서 두 번, 제42회에서 두 번, 제78회에서 다섯 번, 제102회에서 한 번, 제116회 두 번 사용되었다.

25) 《낙본》에서 花神은 협주가 존재하지 않기에 본문의 연구대상인 협주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花神의 한자음 표기는 위 玫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특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낙본》에서 “花神”의 한자음 표기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제27회, 제42회에서는 “꽃귀신”으로 번역하였고, 제78회, 제102회, 제116회에서는 대개 “화신”으로 번역을 하고 단지 일 회에 걸쳐 “꽃신령”으로 번역하였다. 제78회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장회	원문	낙본	장회	원문	낙본
제27회 A	各色禮物祭饒花神	꽃귀신	제102회	聽見說作了花神	화신
제27회 B	衆花皆謝, 花神退位	꽃귀신	제116회 A	必然是花神姐姐了	화신
제42회 A	又遇花神	꽃귀신	제116회 B	一心疑定必是遇見了花神了	화신
제42회 B	園子裡頭可不是花神	꽃귀신			

다만 제78회의 상황은 다소 특별하다. 해당 회에서는 “花神”이 총 다섯 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네 번은 “화신”을, 한 번은 “꽃신령”이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특히 이 “꽃신령”이 등장한 문장에서는 “花神”이 네 번 출현하는데, 아래 표를 통해 설명하겠다.

	제78회 원문	낙본	한국어 풀이 <sup>27)</sup>
1	天上少了一個花神	화신 <sup>28)</sup>	
2 - 5	不但花有一花神, 還有總花神. 但他不知做總花神去了, 還是單管一樣花	다만 한 낮 꽃히 한 낮 꽃신령이 이실 뿐이 아니라 도로혀 도총하는 화신이 이시니 다만 제가 도총하는 화신이 되어 갖는지 도로혀 한가지 꽃만	다만 하나의 꽃에 하나의 꽃신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都總하는 화신이 있으니, 다만 그녀가 都總하는 화신이 되었는지 또는 한

26) 《낙본》의 “花神” 관련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제27회 3쪽 A면(A); 제27회 3쪽 B면(B); 제42회 4쪽 A면(A,B 두 사레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 제102회 16쪽 A면; 제116회 14쪽 B면(A); 제116회 15쪽 A면(B).

	神?	조관훤는 화신이 되어 갖는지 아지 못허리로다 <sup>29)</sup>	개의 꽃만 주관하는 화신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	----	--	----------------------------------

이를 살펴보면 번역자는 첫 번째 “花神”에 “꽃신령”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세 번은 “화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짧은 한 문장 내에서 “花神”이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꽃신령”이라는 한국식 표현으로 독자에게 “花神”의 뜻을 알리고 나머지 번역은 모두 “화신”으로 표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玫瑰” 사례를 통해 《낙본》의 번역 특징으로 초반부 번역과 후반부 번역이 다르다고 짚었었다. 초반부는 고유어로 풀어내는 의역을, 후반부는 중국 원어휘 표현을 유지하는 직역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花神”의 한자음 표기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우선 제27회, 제42회에서는 모든 “花神”을 일률적으로 “꽃귀신”이라는 표기를 하였다. 이는 역시 고유어로 풀이하는 것을 중시하는 번역스타일로 보인다. 제78회 이후를 살펴보면 물론 “꽃신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27회, 제42회의 표기사례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화신”이라는 원어휘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절은 협주 번역에서 한자음 표기 과정을 따로 구분하여 봄으로서 《낙본》의 번역을 세분화하고 오역, 혹은 번역상의 차이가 보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鴿子” 사례를 통해 번역 과정에 한자음 식별 과정이 있었으며 이는 번역 底本의 문제로 봐야 함을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또 “玫瑰”, “花神”의 한자음 표기 경향을 통해 《낙본》의 복잡한 한자음 표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소설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보면 각각 고유어로 풀이하려는 意譯 경향과 중국 원어휘를 유지하려는 直譯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7) 《낙본》의 번역문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우리말로 풀이하였다.

28) 《낙본》, 제78회, 20쪽 B면.

29) 《낙본》, 제78회, 22쪽 A면.

## 4. 낙선재본 《홍루몽》 夾注의 한국어 해석 분석

앞서 한자음 표기 부분을 통해 《낙본》의 저본 문제, 번역자의 번역 경향 등을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협주의 한국어 해석 부분을 분석하여 《낙본》의 기타 번역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번역자가 원문을 모르는 경우

#### 1) “鶻子”의 한국어 번역

앞서 소개하였듯이 제40회에서 《낙본》의 번역자는 “鶻子”를 “鶻子(령즈)”로 식별하고 “닭의 별명”이라는 협주를 달았다. “鶻子”가 “닭의 별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분명 오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번역자가 “鶻子”로 식별하고는 이 단어가 의미상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라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한편, 제41회의 한 번역 사례는 본 “닭의 별명”이라고 쓴 협주와 비교할만 가치가 있다. 《낙본》 제41회에서는 “鶻子”라는 새에 대한 협주가 출현한다. 번역자는 번역문에 “괄즈”로 표기하고 그 밑에 협주로 “시 일흠”이라고 적시하였다. “시 일흠”, 즉 “새 이름”이라 칭한 것으로 위 “鶻子”의 협주와 비교하여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번역자가 제40회 “鶻子”의 협주에도 “鶻子”와 같이 “시 일흠”이라 적었다면 오역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40회에서 번역자가 왜 “鶻子”의 뜻이 “닭의 별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자가 鶻子를 “닭”으로 번역한 이유로는 해당 회 지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유노파는 비둘기 알(鶻子蛋)이 작고 미끈거리 젓가락으로 집어지지 않



자 다음과 같이 말해 가모의 폭소를 유도한다.

劉姥姥拿起箸來，只覺不聽使，又說道：“這裏的雞兒也俊，下的這蛋也小巧，怪俊的。我且得一個兒。”(유노과는 젓가락을 겨우 들기는 했으나 마음대로 손 안에서 다룰 수가 없자 또 한마디를 했다. “이 댁에서는 닭이란 놈까지도 잘나고 멋져서 그놈이 낳은 달걀도 이렇게 감쪽하고 기막히게 이쁜 모양이네요.)<sup>30)</sup>

앞서 한자음 표기 단계의 분석까지 포함하여 상황을 종합해보면 《낙본》의 번역자는 《雙清仙館本》을 저본으로 “鴿子”를 “鴿子”로 식별하고서 잘못 읽은 “鴿子”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상하문을 읽어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침 위 내용을 읽고서는 이를 근거로 “鴿子”를 “닭의 별명”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번역자가 모르는 어휘에 대해 상하문 문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읽어내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鴿子”의 사례처럼 “새 이름”이라 칭하였다면 오히려 오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번역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오히려 오역을 자초하였던 사례이다.

“鴿子” 사례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두 번의 오류가 중첩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자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도 번역자는 “鴿子”의 뜻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오류들로 인해 《낙본》의 번역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 2) 제80회 “招牌” 사례

제80회에는 왕일첩이라는 약을 파는 상인이 출현한다. 해당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這老王道士專意在江湖上賣藥，弄些海上方治人射利，這廟外現挂著招牌，丸散

30) 조설근 저, 최용철, 고민희 옮김, 《홍루몽》 2권, 나남출판사, 2009, 469-470쪽.

膏丹, 色色俱備. (이 왕도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약장수였다. 그는 마구잡이로 약을 처방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이득을 취하는 이로 이 사당의 문 앞에는 간판을 내걸고 환약과 가루약, 고약, 단약 등 색색의 약을 모두 팔고 있었다.)<sup>31)</sup>

《낙본》의 번역자는 여기서 “招牌”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초패: 약명을 써서 미미하는 피 일홈이라<sup>32)</sup>

이 역시 《낙본》의 번역자가 “招牌”의 뜻을 오역한 사례이다. 이는 원문의 내용상 “처방전(海上方)”, “약이 구비되어 있다(丸散膏丹, 色色俱備)” 등 구문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사례에서도 《낙본》의 번역자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후 맥락을 읽으며 판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招牌  
약명을 써서 미미하는 피 일홈이라

그림 5. 낙본 제80회 번역문

## (2) 번역자의 의미 선택: “玫瑰”의 번역사례<sup>33)</sup>

앞서 설명했듯이 “玫瑰”는 홍루몽에서 총 16회 사용되었고, 소설에서 쓰인 의미는 모두 우리가 아는 의미인 꽃으로서의 ‘장미’로 볼 수 있다.<sup>34)</sup>

《낙본》의 번역자는 총 세 번 “玫瑰” 단어 뒤에 주를 달아두었다. 이는 각각 제8회, 제34회, 제44회에 출현하며 중국어 원문과 《낙본》의 번역문은 다음

31) 조설근 저, 최용철, 고민희 옮김, 《홍루몽》 4권, 나남출판사, 2009, 557쪽.

32) 《낙본》, 제80회, 29쪽 B면.

33)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 《中介者十九世紀朝鮮譯官李尙迪之世界圖像》(대만대학교 박사논문, 2018)에서 “玫瑰” 번역에 대해 소개한바 있다.(158-161페이지 참고) 본 소설에서는 “한국어 해석”의 한 가지 사례로서 이 부분을 다소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34) 홍루몽에서 사용된 “玫瑰”는 우리가 아는 장미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당시 청대 사람들은 장미꽃의 세부 종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이는 각각 “薔薇”, “玫瑰”, “月季” 등으로 “玫瑰”는 중간 크기의 장미종을 의미한다. 兪香順, <《紅樓夢》中的<玫瑰月季>考覆發微>, 2015년 제4집, 245-254쪽을 참고.

과 같다.

第八回：玫瑰紫二色金銀線的坎肩兒

번역문: 문괴갸튼 쯔지 량식 금은 서피로 엇기의만 닷게 마고즈<sup>35)</sup>

협주: 붉은 구슬 일흠

第三十四回：糖腌的玫瑰鹵子

번역문: 엇식 담은 민괴 저린 거<sup>36)</sup>

협주: 쫓 일흠

第四十四回：如玫瑰膏子一樣

번역문: 문괴고와 갓튼지라<sup>37)</sup>

협주: 옥 일흠

세 협주를 살펴보면 《낙본》의 번역자는 제8회의 “玫瑰”를 “붉은 구슬”, 즉 “붉은 구슬”로 보았고, 제44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옥”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玫瑰”를 “붉은 구슬”, “옥”으로 번역한 것은 기존 《홍루몽》 해석과 다르게 일차적으로는 “오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說文解字》,<sup>38)</sup> 《漢書》<sup>39)</sup>에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玫瑰”의 옛 의미는 “붉은 구슬”, “옥”의 의미이며, “玫”와 “玫”은 이체자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제8회, 제44회의 《낙본》의 번역자는 “玫瑰”의 옛 의미를 더 선호하는 번역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34회에서 번역자는 “玫瑰”를 “쫓”, 즉 “꽃”으로 보았는데, 이는 전후 문맥을 보면 “설탕에 저린 것”이기에 “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제44회 이전의 “玫瑰” 번역경향은 최대한 “玫瑰”의 옛 의미, 즉 “옥” 혹은 “붉은

35) 《낙본》, 제8회, 7쪽 B면.

36) 《낙본》, 제34회 17쪽 A면.

37) 《낙본》, 제44회 26쪽 A면.

38) 《說文解字》에는 “玫”자는 없고, “玫”자에 대해 “火齊玫瑰也。一曰石之美者.”라고 설명하였다. (漢·許慎撰, 宋·徐鉉校定, 《說文解字》 1上. 玉部.13 참고)

39) 《漢書·司馬相如傳》에는 “其石則赤玉玫瑰”라는 구절이 있고 진대 晉灼과 당대 顏師古가 각각 “晉灼曰：玫瑰，火齊珠也。師古曰：火齊珠，今南方之出火珠.”라는 주를 달았다. 이를 보면 청대 《홍루몽》을 읽는 시대의 독자에게 “玫瑰”는 꽃의 이름이지만, 漢唐대 이전에는 “玫瑰”를 사용하여 붉은 구슬, 옥 등의 의미로도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구슬”로 해석하려는 태도가 존재한다.

이는 3장에서 “玫瑰”의 한자음 표기 앞에서 분석한 번역경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제44회 이전의 번역자는 고유어 풀이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중국어 해석에서도 중국어의 옛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까지 이어졌다고 보인다. 반면 제56회 이후의 번역 경향을 근거로 소설의 후반부 번역자는 19세기 중국문화에 익숙한 번역자로 판단할 수 있다.

## 5. 나가며

이상 본문은 《낙본》의 협주 번역 중 발생한 “오류/오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음 표기와 한국어 해석 부분을 나누고 이를 각각 살펴보았다. 특히 제3장 “한자음 표기 부분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낙본》의 번역문의 한자음 표기를 다루었기에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또 본문은 “오류/오역” 사례 분석을 근거로 당시 소설의 번역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낙본》 번역에 한자 식별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鴿子”의 한자음 표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금과 달리 인쇄술과 서적보존이 허술하였던 19세기 조선에서는 漢字 識別 과정은 번역에서 거쳐야 할 단계였으며 본 연구는 실제로 識別을 잘못하여 誤記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아내었다. 또 다섯 종의 판본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雙淸仙館本》이 底本으로 가장 유력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낙본》 번역에서 한자음 표기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번역자 나름의 논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 56회 이후의 “玫瑰”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미괴”로 표기하였고, “玫瑰露”라는 복합사로 사용된 경우 “메

구”로 표기하였다. 즉 일관성 없어 보이는 번역문에도 번역자의 이성적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지해야 한다.

세 번째, 《낙본》의 번역자 성향에 대해서 소설의 전, 후반부를 나누어 고유어 번역을 중시하는 번역자와 중국 원어휘 유지를 중시하는 번역자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玫瑰”, “花神” 등 사례의 한자음 표기, 한국어 번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제44회와 제56회를 사이로 번역경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다. 우선 제44회 이전의 번역은 최대한 고유어로 풀어쓰거나 중국어 어휘의 옛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제56회 이후의 번역을 살펴보면 중국어 백화음 내지는 중국식 표현을 중시하는 번역 경향이 돋보였다. 《낙본》의 번역에 다수의 번역자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소설의 장회에 따라 번역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본문에서 처음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낙본》 번역가들이 최대한 오역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국어 번역 과정의 “玫瑰”, “招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번역자는 모르는 어휘에 대해 상하문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뜻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오역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낙본》 번역자의 理性적인 면모이다. 비록 《낙본》에는 다양한 번역상의 “오류/오역” 사례가 존재하여 “혼란상”이라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理性적인 판단과 慎重한 태도로 《홍루몽》을 번역업무를 수행한 19세기 조선 번역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몇몇 사례만을 선별하여 분석, 토론한 점이다. 향후 더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낙본》 번역의 의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程甲本《紅樓夢(萃文書屋藏板影印本)》, 中國書店, 2013.
- 程乙本《紅樓夢(萃文書屋藏板影印本)》, 廣文書局, 1977.
- 本衙藏板本《紅樓夢(影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청구  
기호: C4-248).
- 東觀閣本《紅樓夢(影印本)》, 北京圖書館, 2004.
- 雙清仙館本《紅樓夢(影印本)》, 北京圖書館, 2004.
- 樂善齋本《紅樓夢(影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청구  
기호: K4-6864).
- 조선근 저, 최용철, 고민희 옮김, 《홍루몽》, 나남출판사, 2009.
- 최용철, <《續紅樓夢》의 內容과 樂善齋本의 翻譯樣相>, 《중국소설논총》 제3집,  
1994년 10월.
- 최용철, <樂善齋本 完譯紅樓夢初探>, 《중국어문논총》 제1권, 1988년 12월.
- 김태성, <낙선재본 《홍루몽》 역음 성모 표기체제 고찰>, 《중어중문학》 제33집,  
2003.
- 양인중, <《홍루몽》 낙선재 한글 번역본의 번역기법 연구>, 《동아인문학》 제3집,  
2003.
- 김명신, <樂善齋本 《紅樓復夢》의 翻譯樣相>, 《중국소설논총》 제21집, 2005.
- 정경자, <낙선재본 《홍루몽》 판본 연구: 왕희림평본과 정갑본을 중심으로>, 《통합  
인문학연구》 Vol.1 No.2, 2009.
- 정경자, <樂善齋本紅樓夢의 脫文 研究>, 《중국소설논총》 제31집, 2010.
- 조민우, <樂善齋本《紅樓夢》對清代文化術語的翻譯方式與意義>, 《중국어문학논집》  
제94호, 2015년 10월.
- 왕비연, <樂善齋本《紅樓夢》中夾註之性格與特點>, 《중국어문논총》 제91집, 2019.
- 이인규, <번역지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제16권 5호, 2015.
- 허명수, <오독과 오역의 미학>, 《번역학연구》 제7권 1호, 2006.
- 정진배, <언어번역과 문화번역>, 《중국소설논총》 5집, 1996년 3월.
- 俞香順, <《紅樓夢》中的<玫瑰月季>考覆發微>, 2015년 제4집.
- 김대범, 《韓文藏書閣本紅樓夢研究》, 東海大學 碩士論文, 1988.
- 오 단, 《낙선재본 《홍루몽》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정미선, 《〈紅樓夢〉樂善齋版本的翻譯研究》, 華中師範大學 박사논문, 2015.
- 조민우, 《中介者十九世紀朝鮮譯官李尙迪之世界圖像》, 대만대학교 박사논문, 2018.
- 왕비연, 《樂善齋本 紅樓夢의 翻譯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9.
- 曹立波, 《紅樓夢東觀閣本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 劉 禾(Lydia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 Abstract >

## The Meaning of Mistakes in Translation of the Naksunjae Version of *The Dream of Red Chamber*

Cho, Minwoo

The Naksunjae translation of *The Dream of Red Chamber*, as known as the world's first complete translation of this famous Qing novel, is as well as a felicitous material for analyzing the feature of translation itself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19th century.

This article analyzes the incorrect annotations and mistranslated examples of the Naksunjae translation of *The Dream of Red Chamber*, and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were many mistranslations or mistakes, the translators had logical reasons to make the wrong decision.

Through the observ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cess of translation: 1) recogniz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us some mistakes were caused by unclear or profane printing. 2) each translator had his own standard of translation, which still can be seen when we look closely into the text, but these multiple standards made the Naksunjae translation very complicated in consequence. 3) The Naksunjae transl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ormer part, translators prefer to translate Chinese directly to Korean; and in the latter part, translators prefer to preserve original Chinese words. 4) when the translator struggled to find the correct meaning, they rely on the context clues in *The Dream of Red Chamber*, but the cultural misunderstanding still lead to mistranslation.

Key words: Naksunjae, *The Dream of Red Chamber*, translation, annotation, mistak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 31.	2020. 2. 10.	2020. 2. 13.	2020. 2. 25.	2020. 3. 31.